

특별기고

# 종교자유는 성숙한 사람에게나 할 말

8월 23일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초안)'(이하 선언)이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이후, 각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일부 진보적 개신교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불교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찬성의 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불교계의 반응 중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서둘러 조안을 발표한 것이라든가 문맥이 짜임새가 없고 너무 길다는 내용의 비판은 형식적인 문제이니 차치하고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기를 한다. 비판은 선언 중 대체로 두 가지 문장에 대한 것이다.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어떤 종류의 진리인가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진다. 종교가 요구하는 규범상의 진리라면 각 종교별로 다를 수 있지만 옳은 옳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진리가 “믿음”으로 표현되는 종교적 최고 진리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선, 즉 절대선과 동격시 되는 유일신으로

서의 야웨신 또는 알라신이 있다. 그리고 불자에게는 나의 마음에서 깨우쳐 도달해야 할 성불의 길이 있다. 내가 나의 신앙으로서 한 종교를 선택했다면 종교적으로 도달할 궁극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엇이든 인간의 논리로는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일종의 도그마이다.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종교를 삶의 방식으로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석한다면 종교 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영성의 길이란 깨우침의 길이란 같은 종(種)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길의 전체로서는 있는 도그마의 문제라면 종교 간 격차는 좁혀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한 종교에 궁극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 안에서 그 진리를 찾을 수 없을 테니 상호 용인의 폭은 좁아진다.

선언의 뒷 문장이 진리를 찾는 자세의 인간을 표현한 것이라면, 진리를 찾는 내가 하나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

한다면 이해가 되나, 여기서는 ‘궁극적 진리’라고 이해될 소지가 많다. 문장이 더 다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진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가르침을 구하는 타 종교인에게 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은 마치 숲길 때 필요한 공기와 같아서 어떤 종교를 가졌던 통용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근본주의 개신교인이 들으면 오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며 절대적 유일신을 부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는 성숙된 시민사회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행동해야 할 규범을 제시한다. 위의 선언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종교인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종교적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고 종교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의 두 문장을 약간 조잔하게 살펴

자, 다시 말해 분석을 해 보자.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종교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임을 상기하면,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도 무종교인에게서만 불교에 대한 믿음을 기대할 수 있거나 타종교인이 스스로 믿음을 바꾸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좀 더 대수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내가 믿는 진리가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며 그로써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는 데 길을 밝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타 종교인이 믿는 진리도 그러할 것이니 서로를 용인하며 각자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법은 종교적인 삶에서 보다 사회와 역사 속에서



정윤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 조계종, 통합관재 시스템 구축한다

조계종이 사찰 통합관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이번 시스템이 스마트폰과 연계해 도난 방재와 누전 차단 등 화재 예방이 가능하다고 9월 8일 밝혔다. 기존 CCTV가 문화재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된 것과 달리 통합관재 시스템은 가람 전체 관리가 가능하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최근 소프트웨어 인종업체 2곳을 지정하고, 올해 말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에는 일부 사찰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폰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내년 초 사찰 대상 시범사업 예정

목조로 구성된 사찰들은 특히 화재에 취약해 관리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불교계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CCTV 등 도난감시시설도 노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영환 국회의원이 8월 1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도난감시시설 현장점검 결과’ 전체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149점 중 33점(22%)의 감시시설이 노후와 오작동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이나 영주혁신사목조아미타불좌상 등 불교계 문화재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이 제출받은 2010년도 첨단도난감시시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보 제296호인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은 녹화기가 노후됐으며, 국보 제282호 영주혁신사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도 야간감시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긴급보수비가 지원됐다.

보물 제486호 은해사백흥암극락전수미단 감시장비도 DVR 작동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보물 제996호 영봉비로사석야미타및석비로자나불좌상은 야간감시 카메라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5월 경 긴급보수비를 지원받았다.

사찰들이 산 속에 위치하다보니 장비들이 계절과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 CCTV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은 안영환 의원에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물 모두에 대한 보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4-5년 주기로 대대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영환 의원은 “감시시설의 첨단화와 감시인력 확충 등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도난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安·朴 ‘단일화’...배후엔 법륜 스님이?

### 안철수, 20~30대 인기 돌풍 ‘청춘콘서트’로 젊은층 지지확보

정치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원장이 9월 6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변호사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단일화를 표명했다.

안철수 원장이 젊은층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주최한 ‘청춘콘서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1년 5월 2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을 시작으로 ‘청춘콘서트’는 전국 순회공연에 돌입했다. 청춘콘서트에서는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등이 화두로 등장했으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리더십, 도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춘콘서트’의 전국 순회공연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정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20~30대들은 ‘청춘콘서트’를 통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안철수 원장도 ‘청춘 콘서트’에 참여해 순식간에 20~30대를 자신의 팬으로 만

들어버렸다.

청춘콘서트에서 법륜 스님은 안철수 원장의 정치 출마설에 대해 예뻐질 질문을 던진 적도 있다. 안철수 교수가 미국 킨즈에서의 강도 사건을 예로 들며 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하자, 법륜 스님은 “(안 원장이) 먼저 내려가서 움직이면 어떨겠는가. 그럼 다 따라 내려갈 것 같다”고 정치에 참여할 의향을 묻기도 했다.

안철수 원장의 단일화는 ‘제3정치 세력화’에 대한 주장을 낳기도 했다. 공식적 조직은 출범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인맥을 갖고 있다. 안 원장 역시 “내 멘토는 300명 정도”라고 말해 ‘제3정치세력화’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안철수의 인맥은 당연히 청춘콘서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다. 박경철 원장, 조국 교수, 방송인 김제동, 김연자 등을 비롯해 평화재단 산하인 평화교육원장이자 前 환경부 장관인 윤여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법륜 스님이 ‘조력자’



역할을 했으며, 단일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상으로 판단할 때 ‘제3정치세력화’ 법륜 스님과 많은 연관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륜 스님은 평화재단 외에 ‘정도회’의 지도부사로 활동 하고 있다. 정도회는 ‘제2의 YMCA’로 불릴 만큼, 탄탄한 결속력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정도회 역시 안철수의 출마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변호사의 행보가 불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은정 기자

## 종교 이유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의 이유로 임영이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8월 30일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합헌이라는 의견은 7명, 위헌이라는 의견은 2명이었다.

합헌 결정 후 현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나 국가안보와 병역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만큼, 대체복무제 없이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는 또 같은 날 종교적 이유의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없이 처벌하도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시 7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종교 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같은 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의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다. 현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도 “국가와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확장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등 전통문화건축물 증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50% 감면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지구로만 이축이 가능했던 종교시설에 관한 규제를 해제했다.

조동섭 기자

### 기독교당, 서울시장 선거 뛰어든다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기독교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다. 한국 기독교당 정훈 대표는 9월 6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훈 대표는 “낙후된 복지를 제대로 하고, 교계의 변화를 위한 종교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찬반 기독교인을 대표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독교당은 개신교계에서도 반응이 싸늘한 정도다. 조용기 목사는 6일 자신과 기독교당 창당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도 기독교당이 보수계 전체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 - 한권의 책으로 만나는 불교이야기

**2011. 9. 21(수) ~ 11.2(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대강당(동구청 옆)**

**주최**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승보회,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불광출판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후원** 서울 불광사, 광주불교방송  
**대상**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처**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사무국 ☎ 234-0090  
**동참금** 30,000원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불교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직장인 및 청년층의 불교 이해를 통한 계층포교에 기여한다. 대중강좌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불교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대사회의 제반문제를 불교적 가치로 해석하고 실천해낸다.



9월 21일(수)  
**우승택**  
경제야생텍 대표



9월 28일(수)  
**선재스님**  
사찰요리 전문가



10월 5일(수)  
**김정호**  
덕성여대 교수



10월 12일(수)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10월 19일(수)  
**오윤희**  
전고려대장경연구소장



10월 26일(수)  
**무각스님**  
공생선원 선원장



11월 2일(수)  
**현봉스님**  
송광사 광원암 임주